

“우리 가족 먹는 집밥처럼 어르신 대접”

불지사 매주 화요일 어르신 만발공양 16년

도심 속의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가 16년째 꾸준한 만발공양으로 자비와 화해생명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불지사 수행학교를 수료한 단체 및 대학입시 백일기도를 주관하는 문수단체 등 불지사의 신행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만발공양팀은 8월 5일 부산 초읍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있는 부산자유회관에서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만발공양에 나섰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불지사 만발공양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르신들 수만 400명이 넘는다.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만발공양팀의 의견이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어묵볶음, 김치, 콩나물 무침 등의 세 가지 반찬과 부추 된장국으로 나뉘며, 어묵 기름빼기 등의 정성어린 음식이 만들어졌다. 만발공양팀은 배식장 소인 초읍 자유회관으로 이동했다. 낮 12시부터 시작한 배식에는 자유총연맹해운대구여성회와 부산문화청소년포럼 등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동참해 만발공양으로 자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불지사는 1998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 공양을 이어오고 있다.

만발 공양에 동참하고 있는 장정순(63) 불지사 신도는 “맛있게 잘 드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즐겁게 밥을 먹고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것만으로 만발공양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만발공양이 불지사 신도들의 의미 있는 신행 활동임을 밝혔다.

한편 불지사의 만발공양은 1998년 IMF 당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신도들이 시주 한 쌀을 부산 서면 영광사에서 앞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로 회향하면서 시작됐다. 거리에서 펼쳐진 만발공양에는 300여명이 몰려와 장소의 제약이 생겼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도들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인연을 맺어 부산자유회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그 후 16년 동안 이어진 신행에는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보탬이 됐다. 불지사 근처 부전시장 상인들은 각종 신선한 야채 및 재료들을 기꺼이 내놓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시설과 쌀, 자원봉사자 등을 제공해 불지사의 만발공양이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나게 해줬다. 또한 운영 상 부족한 부분에는 불지사 신도들이 매달 십시일반 보시금을 내어 만발공양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불지사 만발공양팀은 정기적인 만발공양 외에도 독거노인 반찬 배달, 효 잔치 등을 통해 사회에 진정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신도·인근 상인 십시일반 모아 500여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

4년 넘게 만발공양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정순옥 무량공양회장(63)은 “고충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고 신심이 생긴다. 몸이 고된 것 같지만 사실이 소임을 하면서 더 건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순옥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불지사 신도들의 협력과 도움이 항상 있기에 10년이 넘도록 만발 공양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발 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50여 불지사 만발공양팀은 새벽 6시부터 나뉘어 다듬기, 밥 짓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장맛비가 끝난 폭염 속에서 불지사 4층 만발공양 전용 부엌을 찾는다.

불지사 만발공양팀 건강밥상 차리기의 신조는 ‘우리 가족이 먹는 집밥처럼’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에는 번거롭더라도 위생과 영양에 심혈을 기울여 자비를 실천할 때에도 미비하게 하지 말고 진정한 성과 함께 제대로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여름에는 계절 특성상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신체와 소화기관이 허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원경 스님 일대기 후대에 전하고자”

산청 내원사, 사적비 및 부도 제막식



내원사는 8월 6일 일성당 원경 스님의 사적비와 부도탑을 제막했다.

경남 산청 내원사(주지 영산)가 일성당 원경 스님의 업적과 생애를 기리는 ‘6주기 추모제 일성당 원경대선사 사적비 및 부도 제막식’을 봉행했다.

8월 6일 내원사 앞 터에서 진행된 제막식에는 내원사 주지 영산 스님,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허기도 산청군수 등 내빈을 포함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적비와 부도탑 제막으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주지 영산 스님은 “원경 스님은 폐사되었던 곳에 내원사를 복원하면서 모든 것을 항상 스스로 해결하며 남한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내원사를 복원하셨던 원경 스님이

있기에 지금의 내원사가 있다. 오늘 설치된 사적비와 부도탑으로 원경 스님의 참된 일생을 돌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은 “원경 스님의 행적과 일대기로 후대에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우리 현 불자들의 몫이다. 황폐해진 땅에 불법의 씨앗을 심은 민족의 어머니인 원경

스님을 회상해 본다”며 원경 스님을 추모했다.

한편 일성당 원경 스님은 1959년 400년전 화재로 전소된 덕산사의 터에 내원사를 복원했다. 그 후 도량 가꾸기에 평생을 힘써온 원경 스님은 지난 2008년 세수 85세로 입적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대구 법왕사 27회 백고좌 회향법회... 8월 2일 봉행

마가 스님 초청 힐링콘서트

법왕사(주지 실상)는 8월 2일 경내에서 제27회 백고좌 회향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초청 힐링 콘서트를 겸해 의미를 더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구도자적 자세만 있다면, 부패된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혼탁한 기류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보살행을 하여, 잡에서 깨어나 자유롭게 살아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풍물 공연은 물론 우담바라 합창단과 연합합창단의 합창, 상정 스님(대구 즐거운 주지)



법왕사는 8월 2일 경내에서 제27회 백고좌 회향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과 보현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고집을 버리면 행복해지고 또 고집을 버리면 더 행복해진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의 고집을 버려라.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법왕사는 백고좌 법회 회향으로 8월 20일에는 전 해인사 율원장 해능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불명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왕사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 약 500명 시설규모에 약 50여명을 정원료로 해를 전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순직장병 극락왕생 및 군부대 무사안전 발원”

신홍사·삼광사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거행

최근 총기난사와 폭력으로 인한 인명사자가 군대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법회를 열어 순직장병의 극락왕생과 군부대 무사안전을 기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속초 신홍사(주지 우송)는 8월 8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육군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천도법회’를 거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난 6월 21일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지 49일째 되는 날로, 순직장병의 영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는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건봉사 주지 마근 스님 등을 비롯해 8군단 관계자와 장병, 22사단 울곡

부대 관계자 및 장병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추모묵념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신홍사 한마음합창단의 조가 합창, 영가법문, 추모사, 사후서원, 헌화, 시 등 순서로 진행됐다.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은 영가법문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의 인연을 다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슬픔에



속초 신홍사(주지 우송)는 8월 8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육군 22사단 GOP 순직장병 49재 천도법회’를 거행했다.

잠긴 유가족들과 군부대 지휘관, 군장병 여러분들도 영가들이 극락왕생했다는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피속에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신홍사는 49재 거행 후 총기난사

사고 희생자 5명의 위패를 봉안했다. 한편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도 같은 날 오전 9시 삼광사 경내 지장전에서 스님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사단 총기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 장병을 위한 49재를 거행했다. 이너는 기자

동원 전국어린이 연합 불교학교 캠프

8월 15~1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사단법인 동원(이사장 성행)은 8월 15~1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정정해역 한려수도의 품안에서 나를 찾는 캠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불교학교는 독자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열기 어려운 사람 및 어린이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8~13세의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전교육과 기초습의를 시작으로 입제사, 조별 텐트 설치, 예불, 우리 모두 멋쟁이(조별활동), 합장주 만들기, (부모은

중경) 사경, 포행, 신나는 찬불가 율동, 신나는 물놀이(야외 수영장), 신나는 깃벌체험, 나에게 쓰는 편지, 신나는 캠프파이어, 숲속명상, 시원한 부채만들기,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들의 인성을 위한 심성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051)864-4569 김나영 객원기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율력으로 극락왕생 발원. 잘 못된 못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 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제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장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